

IL SOO & SUNG AE KIM  
WEST AFRICA MISSION  
P.O.BOX 2684 Serrekunda  
Gambia/W/AFRICA

E-mail : [ilsoowam@hanmail.net](mailto:ilsoowam@hanmail.net), [ilsoowamgms@gmail.com](mailto:ilsoowamgms@gmail.com)

Tel : 220-711-9030. 220-7176826

소속기관 총회 세계 선교회 (G.M.S) 파송교회 : 대구 남부교회 (이재범목사)

####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기가 거의 끝난 시점이지만 올 우기는 작년에 비해 비 양은 적어서 내년에 물 걱정이 됩니다. 우리집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백명이 넘기에 걱정이 되지만 내년 일은 내년에 걱정해야 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즘은 몇일에 한번 씩 수돗물이 나와서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월 어느날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센타 안에서 형제들이 거주하던 집 지붕이 날아가 버렸고, 미션 간판 및 센타 내에 있는 망고 나무와 많은 나무들이 부러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급히 부러진 나무들은 정리 되었지만 집 지붕은 손 쓸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그냥 집은 허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기가 끝나면 바로 집을 허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섬기는 교회들은

사역자 중심으로 사역을 임하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 옮기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풀어가야 하고, 교회들이 전반적인 변화를 주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역자들은 교회 변화에 주춤기만 하고 때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선교사가 앞에 서서 이끌어 가면 현지 사역자들의 리더쉽 등 여러 가지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파비' 형제가 유엔 기후 변화 프로젝트에 일을 하면서 '조지타운' 이라는 곳에서 시간이 날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모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당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작은 모임에서 다시 조금 더 큰 모임들이 이루어지면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제자 훈련들도 할 수 있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아이들 이야기

어렵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10대라는 공통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똑 같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너무나 먼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고 한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10대들의 특징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만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명의 아이들이 진

학을 위해 입시 시험을 치루었고 대학 진학 시험은 결과가 나왔지만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고등학교 진학 시험은 10월 첫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올해도 섬기는 교회 학생들에게 새 학기를 위한 노트등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유치원은 2023-2024 학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모집을 위한 광고가 나가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사람들의 선착순으로 두 시간 만에 모집이 끝이 났고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의 원성을 올해도 또 들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교사 2명이 새로 채용되어서 아내가 교사들을 훈련 시켜야 하는 분주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는 8월달에는 무척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아부코 교회에서 주일 설교, 제자 훈련, 금요 기도회 인도 등 예전 교회를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양하기 전 시간들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끝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주형이는 병원에서, 하영이는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60대 중반으로 들어가니 몸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아프면 쉽게 치료되지 않고 오랜 시간 고생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처럼 의료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과 싸움면서 이겨야 하기에 때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도의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사역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어진 일에 기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지 타운” 지역에 복음의 불 씨앗이 지퍼질 수 있도록

입시를 치룬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무슬렘이란 벽은 정말로 어렵고 높은 장벽입니다. 감히 어떤 사람들이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작은 기도의 불씨는 큰 불씨로 번져 어느 하나님 시간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날을 위해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10월 어느날

감비아에서 김일수 최성애 선교사 드립니다.